

정부-현대차·기아, 저탄소 전환 ‘속도’

‘공급망 탄소감축 상생 협약’

1차 협력사 설비도임비 지원

민관 교육프로그램 체계 구축

현대차그룹이 부품 협력사와 함께 저탄소 전환에 속도를 낸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17일 정부와 공공기관, 협력사들과 함께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기아가 추진해온 공급망 탄소저감 노력의 연장선이다.

협약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1·2차 부품 협력사들이 참여해 자동차산업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대차·기아는 협력사의 증장기 탄소감축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설비 도입과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저감 상생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공급망 내 자발적 감축과 협력 확산을 유도하

는 민관 공동의 지원 모델로, 하위공급망까지 저탄소 전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형·상생형 구조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부와 현대차·기아는 1차 협력사의 탄소 저감 설비 도입 비용을 공동 지원한다.

1차 부품 협력사는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2차 협력사에 환원해 증기부와 함께 2차 협력사의 탄소감축 설비구매를 지원하고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관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현대차·기아는 2045년까지 차량 생산부

터 운행, 폐기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급망의 탄소중립 전환을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설정했다.

올해 4월에는 ‘자동차부품산업 ESG·탄소중립 박람회’를 개최하며 협력사들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만든 공급망 저탄소 전환의 실질적 협력 모델”이라며 “지속가능경영 실천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17일 정부와 공공기관, 협력사들과 함께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달 무역흑자 8억800만달러…전년비 3.2% ↑

지난 10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8억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7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10월 광주·전남 무역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한 46억3200만달러, 수입은 2.1% 증가한 38억24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7억8300만달러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486억4200만달러, 수

입은 6.3% 감소한 372억83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13억59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다.

10월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2% 증가한 13억9000만달러, 수입은 28.3% 증가한 8억4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0월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한 32억4000만달러, 수입은 3.5% 감소한 29억8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2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일감 몰아주기…‘우미’ 과징금 483억·검찰 고발

5개 계열사 4997억원 지원 ‘벌폐입찰’ 규제 우회 입찰

중견기업집단 ‘우미’가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줬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받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로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총 483억7900만원이다. 회사별로 보면 우미건설 92억4000만원, 우미개발 132억1000만원, 우미글로벌 47억8000만원, 우미산업개발 15억6600만원, 명진종합건설 24억2400만원, 전승건설 33억7000만원, 명일건설 7억900만원, 청진건설 7300만원, 심우종합건설 65억4200만원, 우미에스테이트 25억1400만원, 명상건설 39억5100만원이다.

우미는 2017년부터 자신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를 비주관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다수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폐입찰’ 등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벌폐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에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추가했다.

그러자 우미는 우회로를 뚫은 것이다.

조사 결과 우미는 그들 차원에서 지원 행위를 기획·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본부는 업체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공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시공사를 선정하고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타 계열사 직원을 보냈다. 결국 본부의 의도대로 모두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해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 참여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도는 독일의 심장부 베를린의 모모고마트에 전남 농수산물품 상설판매장을 개장해 K-푸드의 새 거점을 마련했다.

독일 베를린에 전남 농수산물식품 상설판매장 개장

도, 모모고마트 입점…K-푸드 열풍 속 현지 유통망 공략

전남도가 독일의 심장부 베를린의 모모고마트에 전남 농수산물품 상설판매장을 개장, K-푸드의 새 거점을 마련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독일 현지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아시안 식품 온라인몰(momogo.de)을 운영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모모고의 첫 오프라인 매장에 지난 13일 입점했다.

개장식에는 현우승 주독일 한국대사관 참사관과 독일 최대 슈퍼마켓 체인

레베(REWE) 구매 담당자, 베를린 자유태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자유대 학생들은 레베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럽에서 케이-푸드가 사랑받는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전남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이에 레베 측은 “전남 제품을 레베 매장에서도 곧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협력 가능성을 열었다. 상설판매장에는 완도 김, 보성 녹차,

고흥 유자차, 나주 배음료, 구례 나물류는 물론, 독일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파우치 음료와 곤약젤리가 지난 40여 업체의 우수 농수산물품 100여 종이 입점했다.

운영사인 모모고는 독일 대표 아시안 식품몰을 비롯해 아마존, 틱톡상 등 온라인 채널과 레베 등 오프라인 유통망을 동시에 확보한 주목받는 푸드테크 기업이다.

이민철 모모고 대표는 “20~30대 젊은 소비자가 K-푸드 소비를 주도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5년, 10년 후가 K-푸드의 절정기가 될 것이다”며 “전남의

우수한 농수산물물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젊은 층을 타겟으로 유럽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베를린 상설판매장 개장으로 전남 우수 농수산물물을 알릴 새로운 창구를 확보했다”며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전남의 맛’을 직접 경험하도록 현지 유통 채널을 적극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들어 9월 현재까지 전남 농수산물품 수출액은 6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고령층 카드 포인트 결제 시 자동사용

소멸 예정 포인트 문자로 안내 의무화

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자동 사용돼 포인트 소멸을 막는 서비스가 앞으로 모든 카드사에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카드 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수백억원의 카드 포인트가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모바일 앱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포인트 사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 소멸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카드 포인트 규모는 150억원으로, 2020년(108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우리, 현대, KB국민 등 일부 카드사만 제공하고 있는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를 8개 전업 카드사로 전부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별도 신청 없이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가 기본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

센터 등을 통해 해지할 수 있다.

또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만 기재된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앞으로는 카드사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서도 사전에 안내할 방침이다.

소멸 예정 포인트를 확인하는 즉시 편리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사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용대금명세서에는 소멸 예정 포인트 금액뿐 아니라 포인트 사용처나 현금화 신청 방법 등도 함께 안내할 구상이다. 아울러 금융결제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운영 중인 ‘카드포인트 통합조회·현금화 서비스’ 등도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완료된 카드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령층 대상 포인트 자동사용 기본 적용은 소비자 안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주택시장 바닥 다졌나…반등 기대감

매매가격지수 5개월째 하락폭 둔화…소비심리지수도 상승

고금리 장기화와 수요 침체에 고전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주택시장이 미세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4%로 전월(-0.07%)과 견줘 하락폭이 0.03%p 축소됐다.

지난 5월과 6월 -0.28%에서 -0.22%로 하락폭이 줄었던 이후 5개월 연속(7월 -0.18%→8·9월 각 -0.07%)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0.10%를 기록했던 전남 역시 10월 -0.07%로 하락폭이 줄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광주는 -0.05%로 전월(-0.09%)보다 0.04%p, 전남은 -0.18%에서 -0.14%로 0.04%p 각 높아졌다.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양 지역간 회복이 엇갈렸다. 광주는 -0.12%에서 -0.06%로 하락세가 축소된 반면, 전남은 -0.01%에서 -0.09%로 치솟았다.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의 경우

광주는 0.07%에서 0.01%로 하락했고, 전남은 0.00%로 3개월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다.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광주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연속(0.01%→0.07%→0.08%) 상승세를 이어갔고, 전남은 -0.13%→-0.09%→0.01%로 하락폭이 줄었다.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지표는 광주는 지난 8월 0.01%로 상승전환 한 이래 2개월 연속(9월 0.08%→10월 0.10%)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남은 3개월 연속(8월 -0.17%→9월 -0.11%→10월 -0.01%) 하락폭이 줄었다.

지역 주택시장을 둘러싼 미세한 회복 조짐은 소비자심리지수조사에서도 일한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 자료를 보면 광주 지역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6.3으로 전월(101.4)과 견줘 4.9p 올랐다. 전남은 104.0에서 106.0으로 2.0p 뛰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